

2014 인사미술공간 큐레이터 워크숍 선정회의 총평

_임산/동덕여대 큐레이터학과 교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진 큐레이터 양성프로그램이 올해에는 인사미술공간 큐레이터워크숍으로 조정되고, 다양한 주제의 특강과 프로그램으로 강화된 새로운 포맷으로 마련되었다. 그 어느 해보다도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기획과 열정을 갖춘 지원자들이 많이 지원했다. 서류심사와 인터뷰 심사를 거쳐 5 명을 워크숍참가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동시대 전시문화와 큐레이터십에 대한 밀도 있는 관심과 분석력, 실천적인 경험 등을 눈여겨보았다. 전시기획 뿐만 아니라 교육과 리서치, 비평,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등 여러 큐레토리얼 영역들에서 나름의 비전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선정회의의 심사평(각론)_인사미술공간

□ 지원자 현황

미술계의 각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예비기획자 총 28 명의 지원신청 접수되었다. 2014 년 인사미술공간 큐레이터워크숍 지원율 5.6:1 은 지난 2012 년 아르코 신진기획자 워크숍 지원율(2.14:1)대비, 약 2.62 배의 증가를 보였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시각예술 활동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중 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는 12 명이었고, 본인의 전시기획을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한 경험이 있는 지원자는 9 명이었다. 신청자들은 25 세부터 40 세까지 비교적 다양한 연령이었으며, 전공분야는 시각예술 전반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 밖에도 철학, 미학, 천문학, 역사 등, 관련 인문/과학분야 전공자들의 지원도 이어졌다. 최종 인터뷰에 참여했던 지원자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워크숍에서 만나게 될 동세대의 예비기획자들과의 네트워크에 대한 기대가 많았다.

□ 제출자료 평가

본 워크숍의 참가자 선정은 지원자들이 택일하여 제출한 전시기획안 또는 국내에 대한 전시서평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전체 28 명의 지원자 중 11 건의 기획안과 17 건의 전시서평이 모아졌다. 기획안과 전시서평 모두 전문적이지는 않았지만, 현대미술에 관심 있는 예비기획자들의 솔직한 질문과 고민이 성실히 담겨 있었다. 한편 본질적으로 기획자로서의 독보적인 관점과 논지를 기대하였던 전시서평 자료에서는 다소 1 차적인 접근(전시의 보도자료, 작가의 스테이트먼트 등)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해당 전시나 작가의 의도에 지나치게 기대어 있는 상황이 많았다. 이러한 부분은 사건을 표면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머물러 버려 스스로의 입장과 분석이라는 기본적인 기획자의 태도를 간과한 결과가 되어버린다. 전시서평은 사실적 정보에 대한 정확한 관찰/전달과 더불어 정보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제기의 방향을 파악하여 자신만의 비평적인 관점을 전달할 때 설득력을 얻게 된다. 기획안의 경우 예비기획자들의 기민한 관찰과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시주제(개념)를 전달하기 위한 현실적인 점검과, 점검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대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기획안이 많았다. 이것은 결국 기획이 추상적으로 치우치거나 호기심 그 자체, 상상의 영역 안에서 맴도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기획은 이론적 논지와 비평적 태도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움직이는 '손의 근육'과 같은 물리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때문에 미숙할 지라도 치열하게 현실구현에 대한 방법적 고민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동시에 창작자들과 나누는 끊임없는 소통, 현장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는 멈추지 않는 눈과 귀를 가져야만 실체와 만날 수 있다. 지원자 전반이 경험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본 워크숍에 가져 주신 관심과 도전에 감사를 전하며, 큐레이터 워크숍의 공개특강에서 직접 만나 더 많은 질문과 갈등을 서로 나누며 대화하기를 기대한다.